

제 11회 한일 미래 포럼 소감문

최인서

최근 강제징용 판결 문제로 한일 양국 간의 사이가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대대적인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벌어질 정도로 양국의 감정의 골은 상당히 깊어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더욱 교류를 강행해야한다는 주최 측의 말을 듣고, 나는 그 말에 깊이 동의했다. 하지만 막상 포럼 시작 날짜가 다가오니 한일 양국의 민감한 문제들을 건드리는 이번 토론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긴장을 한껏 가슴에 담은 채로 토론장으로 갔다. 그런데 나는 역으로 이번 토론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것이 가장 나를 설레게 했다. 먼저 서로에 대한 소개와 인사들을 하는데 나를 포함한 모두의 눈빛 속에는 긴장이 서려있었다. 그런데 긴장도 긴장이었지만, 모두의 눈빛에는 그보다 더 큰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다. 모두들 서로와 친해지고 싶어서 두근거리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토론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잔뜩 긴장한 채로 말을 이어나갔다. 무엇보다도 나는 내 토론 주제 그룹의 토론 진행역을 맡았기에 남들보다 더 큰 부담을 느꼈으리라 확신한다. 하지만 포럼 측에서는 토론진행역의 구체적인 역할을 지시해주지 않았기에 내 스스로 진행역다운 일들을 생각하여 시작했다. 토론에서는 주제와 맞지 않는 길로 빠지는 것이 매우 혼란 일이고 경계해야하는 일인데, 진행역은 그러한 이탈을 요령껏 제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발제를 하는 것으로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야기가 탈선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한 나의 역할이었다.



사실 토론이라고는 해도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내가 속한 그룹의 주제는 젠더 문제였다. 인권을 외치는데 찬성과 반대가 어디 있겠는가. 자연스럽게 우리 그룹은 토론이 아니라 토의와도 같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고, 모처럼 한일 대학생들이 모였으니 한국과 일본의 젠더 현실과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고정관념 등에 의한 피해는 어디에나 있었고, 일본은 한국보다 심하면 심했지 나은 상황은 아닌 듯 했다. 얼핏 다른 그룹의 토론을 훑어보니 열띤 토론을 벌이는 그룹도 있는 듯 했다. 나중에 친구로부터 들어보니 주제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지나치게 탈선했다고 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그룹은 모두 온화하고 친절하 사람들뿐이었다. 한 사람이 말을 하면 통역 담당 분이 통역이 끝날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해주는 좋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덕분에 우리 그룹은 느긋이 시간 안에 토론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고, 여유롭게 결과를 정리할 수 있었다. 나는 인복이 많은지 어째 내 주위는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 같다.

토론 내내 따라다니던 TBS의 취재진도 처음에는 굉장한 부담이었지만 둘째 셋째 날이 될 쯤에는 더 이상의 긴장도 사라져 카메라 앞에서 브이를 해 보이는 등 여유도 생길 정도였다. 다만 내 멋있는 인터뷰 영상은 통째로 편집돼서 굉장히 안타깝다. 정말 멋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근처에 있는 유명한 신사인 이즈모타이샤에 견학을 가기도 했다. 그저 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유명한 곳도 둘러보며 참가자들끼리 친목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일정이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차이, 성 인식 차이 등을 꽤나 알게 되었고 일본인의 관점으로 한 생각 등 참신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바로 옆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차이들이 곳곳에 녹아있는 듯하다. 다른 그룹이 발표한 강제징용 문제나 재일교포 문제에 대한 많은 지식들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정작 나는 그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알지 못했다. 다른 그룹이 조사한 지식의 양은 그것들을 전부 메우고도 남을 정도로 공을 들인 것이었다.

이 포럼에서는 친구들과 며칠 동안 얼굴을 계속 마주해야하다보니 학교나 다른 곳에서 만나는 친구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깊이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친해진 친구들과는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나눌 정도가 되었다. 좋은 친구들을 잔뜩 사귀게 되어 매우 만족스럽다. 다만 포럼 장소가 많이 불만족스럽다. 굳이 시마네 현으로 정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가 다케시마의 행정분류가 시마네현 소속이라는 점에서인 듯하다. 단지 그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없는 시골 중의 시골 시마네 현으로 정한 것은 부적절하다 본다. 다음에는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로 정해주었으면 한다. 편의점 한번 가는데 왕복 30분이라니 심각하다. 한국에서 열 때 독도가 강원도 소속이니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연다고 생각해보자. 지나치게 무리가 있다.

또, 식사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높은 비용을 내지 않았으니 양질의 식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지만 그래도 맛있는 식사를 기대하게 된다.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싶다.

사실 토론도 토론이지만,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는 교류를 통해 감정적인 개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교류에 관한 내용을 보다 많이 넣어서 참가자들이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많이 조성해주면 더 매끄러운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미 하고 있는 마니또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참가자들끼리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